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HOME and Personality with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호서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조성연**

Major in Child Studies, Hoseo Univ.

Associate Prof. Cho, Song-Yon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HOME and personality with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subjects were 138 children(4 to 6 year-old) and their mothers in Seoul, Gyunggi-do, and Chungnam.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Cooperative Preschool Inventory(CPI), The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HOME), and Children's Personality Test.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r, stepwise regression, ANOVA, Scheffé test for the post hoc test, and Cronbach α for the reliability in SPSS PC program. The major findings with the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were as follows. 1) That was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HOME(language environment and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and personality(sociability and familiarity). 2) That was explained significantly by sociability,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language environment, and stimuli for development. 3) That was no sex-difference and was an increase by age.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HOME, and personality by familial demographic variables.

▲ 주요어(key words) : 학령전 아동(preschool child),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 가정환경(HOME), 성격(personality)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교에 입학한 후 자녀의 학교 성취도에 대해서 부모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이후의 학교 성취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한 후의 학교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들이 새로운 교육기관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조기 입학이 허용

된 이후 일찍 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성취도 및 학교에서의 적응은 또 다른 중요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왕따, 학교생활에의 부적응 등의 문제를 들어 조기입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6세 연령의 재학률이 31.3%로서 '90년의 39.0%, '95년의 36.2%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통계청, 2001). 이와 함께 학교에 취학해야 함에도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까지 증가하고 있다(중앙일보, 2002. 4. 14). 이러한 현상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제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성취도에서의 저하를 우려한 때문일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읽기, 쓰기, 셈하기는 물론, 영어, 피아노, 태권도 등의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시키고 있다.

학령전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교에서의 성공에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호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조성연(E-mail : sycho@office.hoseo.ac.kr)

필요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준비도검사가 있다. 준비도는 보상교육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되기도 하였는데(Spar & Foreman, 1998, 재인용), 이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부모 참여에 의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준비도는 신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이나 학습과제의 특성까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astasi(1988: 441-442)는 준비도를 “학교 수업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선행학습 기술, 지식, 태도, 동기 및 행동 특성의 습득”이라고 정의하였다. 준비도를 초기 학습에 대한 준비로 정의할 때 이것은 인지적인 면과 사회정서적인 준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학원 등에 다니지 않았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들은 처음으로 정규 교육기관을 경험하게 되어 부모가 아닌 성인, 즉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혼자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은해(2001: 222)는 준비도를 초등학교 초기 학습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초 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의 획득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Zigler(1998)도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행동과 인지 발달, 교실에서의 적응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Parker et al., 1999).

학령전 아동들의 준비도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환경과 성격을 들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산업화 사회 속에서 아동들은 매일 다양한 환경에 접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은 아동이 접하는 최초의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에 대한 개념화와 평가도구의 개발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지능발달에서 초기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한 Bloom(1964)의 연구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이은해, 2001: 319). 그는 지능과 학업성취와 관련된 가정환경의 하위변인들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변인의 초점은 부모의 지위나 가정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부모가 실제로 아동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주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장영애, 1987).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가정환경의 정도와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개발해왔다. 그 중 Caldwell와 Bradley(1972)가 개발한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는 가정내 물리적 환경의 질과 양, 가정에서 제공되는 발달적 자극의 정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교준비도와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은 학교성취에 대한 독립적인 예언변인이 아니라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Alexander & Entwistle, 1988; Gredler, 1980; Jones & Mandeville, 1990; Sheperd & Smith, 1986). 또한 Jones와 Mandeville(1990)은 아동의 읽기 성취와 관련된 준비도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Morrison, Griffith와 Alberts(1997)는 부모

의 교육수준과 직업유형 및 아동의 성은 아동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다르게 가정에서 부모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향상되고, 인지적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들(Christenson, 1995; Eccles & Harold, 1996; Griffith, 1996; Moles, 1996; Parker et al., 1997, 1999)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관련된 가정환경의 영향이나 부모 참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령전 아동의 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성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성격은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유전에 의한 것인지 혹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쟁을 거듭해오고 있는 주제이다. 성격의 특질이론에서처럼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학습이론이나 현상학적 이론에서처럼 성격은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이고 외현적인 행동 특질로서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입장들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고려하여 이철원(1999)은 성격이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내는 독특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안정된 인지적, 정동적 및 행동적 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김정희 외, 1999). 그리하여 성격은 사회적 기술이나 능숙함, 혹은 남에게 주는 두드러지고 뚜렷한 인상의 2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특히 Kelly(1955)는 성격이란 자신의 생활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Hall & Lindzey, 1978: 9). 학교준비도와 관련한 성격은 Dollard와 Miller 학습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행동이 일어나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만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학교준비도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가정되므로 성격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격은 그 특성상 측정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과 측정도구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로 초등학교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학령전 아동 대상의 학교준비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학교준비도와 관련하여 이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가정환경과 성격과의 관계 및 그 설명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들의 성과 연령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유형, 월평균 생활비,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월평균 수입 대신에 월평균 생활비를 산출한 이유는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산출된 결과를 통해 부모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전의 다양한 가정환경 자극의 필요성과 가정에서의 자녀 성격 형성

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가정환경(HOME) 및 성격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가정환경(HOME)과 성격은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얼마나 설명해줄 수 있는가?

셋째,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가정환경(HOME) 및 성격은 성과 연령(개월)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가정환경(HOME) 및 성격은 사회인구론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54개월에서 72개월된 남녀 아동들 138명과 그 어머니 138명의 총 276명을 대상으로 2000년 5~6월 사이에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받은 학생들에 의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성별 사례수와 평균 연령 및 표준편차, 연구대상자에 대한 사회인구론적 변인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 빈도와 평균 연령(N=138)

성	사례수(%)	평균(개월)	표준편차
남	76(55.1)	66.88	3.22
여	62(44.9)	67.26	3.30
전체	138(100)	67.05	3.25

2. 연구도구

1) 학교준비도 검사

학교준비도 검사는 학교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Caldwell(1970)이 제작한 유아검사(Cooperative Preschool Inventory: CPI) 문항에 기초해서 이은해(1979)가 개발한 검사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4개 하위영역, 즉 개인/사회적 반응 19문항, 연상적 어휘 13문항, 수개념 15문항, 감각 개념 19문항의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세에서 6세용으로 15분 정도 소요되는 개별검사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65였다.

<표 2>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론적 변인

종류	부	모	
교육수준	대학원졸	12	2
	초대졸·대졸	79	54
	고졸 이하	38	74
계	129	130	
직업유형	전문기술직	14	7
	행정·사무직	69	14
	판매·서비스직	27	9
	생산·운수	14	5
	주부·무직	1	103
계	125	138	
월 평균 생활비	100만원 미만	25	
	100-150만원 미만	20	
	150-200만원 미만	28	
	200만원 이상	23	
계		96	
거주지역	서울	72	
	경기·충남	55	
	계		127

2)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

가정환경 자극검사(The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 HOME)는 Caldwell과 Bradley(1979)가 제작한 검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장영애(1986)가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거친 검사도구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발달을 위한 자극, 언어적 환경, 육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 놀이 자료의 9개 하위변인에 대해 총 8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71이었다. 이 검사는 어머니와의 면담에 의해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있으며 '예'인 경우에 1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가정환경 자극검사와 함께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유형, 월평균 생활비, 거주지역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3) 유아성격검사

유아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송인섭(1992)이 제작하여 표준화시킨 유아성격검사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학문성, 가족성, 사회성, 정서성의 4개 하위영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예'인 경우에는 2점, '아니오'인 경우에는 1점으로 채점된다.

3. 결과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PC 프로그램(win 10.0)을 이용하여 학교준비도검사, HOME과 유아성격검사의 각 하위변인 점수와 총점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일원분산분석이 실시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 5% 유의도 수

준에서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Cronbach α 가 산출되었다.

III. 연구결과

1.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HOME 및 성격과의 상관관계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HOME 및 성격과의 각 하위변인 및 총점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가정환경 및 성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는 아동의 학교준비도 총점과 HOME의 언어적 환경, 환경의 물리적 측면과 유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독립성의 육성과는 유의 있는 부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성격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성과 가족성간에 유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들과 HOME 및 성격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사회적 반응과 언어적 환경, 환경의 물리적 측면, 사회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독립성의 육성과는 유의 있는 부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연상적 어휘는 언어적 환경과 정적 상관관계를, 독립성의 육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 있게 나타났다. 수개념은 언어적 환경, 놀이자료, 사회성, 가족성과, 감각 개념과는 환경의 물리적 측면, 가족성과 유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이를 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들보다는 여아들에게 있어서 학교준비도와 HOME 및 성격이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학교준비도 총점과 하위요인 중 연상적 어휘만이 언어적 환경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하위요인 및 성격과는 유의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여아의 경우, 학교준비도 총점과 HOME의 언어적 환경,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 놀이자료에서, 성격의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과 유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에서는 개인/사회적 반응이 언어적 환경,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 놀이자료에서, 성격의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독립성의 육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연상적 어휘는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사회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수개념은 언어적 환경과 환경의 물리적 측면, 사회성, 가족성과, 감각개념은 환경의 물리적 측면, 사회성, 가족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표 3> 성별 학교준비도와 HOME 및 성격과의 상관관계

	성	개인/사회적 반응	연상적 어휘	수개념	감각 개념	준비도 총점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남	.066	.010	.023	.073	.059
	여	.009	-.317*	.009	-.039	-.120
	전체	.043	-.116	.016	.029	-.016
발달을 위한 자극	남	-.138	.030	-.086	-.100	-.099
	여	.063	-.165	-.124	.027	-.071
	전체	-.053	-.054	-.093	-.056	-.088
언어적 환경	남	.167	.261*	.070	.129	.238*
	여	.276*	.085	.357**	.071	.286*
	전체	.213*	.182*	.218*	.099	.258**
욕구 만족 정도 및 허용성	남	-.124	.058	-.100	-.080	-.079
	여	.262*	.126	.238	.102	.262*
	전체	.064	.088	.075	.009	.088
독립성의 육성	남	-.112	-.202	-.104	-.038	-.174
	여	-.282*	-.165	-.079	-.024	-.212
	전체	-.182*	-.187*	-.092	-.030	-.190*
정서적 분위기	남	.005	.092	-.114	-.037	-.002
	여	-.050	-.161	.081	-.004	-.054
	전체	-.018	-.013	-.019	-.021	-.025
경험의 다양성	남	-.037	.036	.024	.150	.047
	여	.267*	-.067	.097	.111	.147
	전체	.090	-.005	.058	.134	.089
환경의 물리적 측면	남	.063	-.064	.057	.017	.021
	여	.295*	.169	.263*	.425***	.379**
	전체	.174*	.042	.163	.202*	.195*
놀이자료	남	-.004	.002	.124	-.040	.024
	여	.288*	.203	.223	.201	.321*
	전체	.120	.087	.181*	.053	.157
HOME 총점	남	-.019	.042	-.011	.018	.011
	여	.256*	-.002	.235	.213	.238
	전체	.107	.022	.118	.101	.118
학문성	남	-.024	-.051	.082	.045	.004
	여	.174	.065	.100	.157	.169
	전체	.055	-.015	.073	.096	.066
사회성	남	.135	.010	.096	-.017	.087
	여	.409***	.301*	.354**	.388**	.497***
	전체	.255**	.124	.206*	.154	.265**
가족성	남	-.078	-.131	.146	.250*	.022
	여	.474***	.088	.352**	.384**	.444***
	전체	.142	-.052	.223**	.307**	.190*
정서성	남	-.185	-.068	.070	.110	-.058
	여	.445***	.178	.245	.226	.391**
	전체	.062	.016	.124	.167	.116

*p< .05

**p< .01

***p<.001

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HOME 및 성격의 회귀분석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HOME과 성격의 하위변인들이 학교준비도를 얼마나 설명해줄 수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학교준비도에 대한 HOME과 성격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²	β	F
개인/사회적 반응	사회성	.065	.241	9.353**
	독립성의 육성	.108	-.212	8.093***
	언어적 환경	.137	.171	6.958***
연상적 어휘	독립성의 육성	.035	-.193	4.837*
	언어적 환경	.071	.189	5.049**
수 개념	가족성	.056	.238	7.892**
	언어적 환경	.086	.243	6.294**
	발달을 위한 자극	.130	-.223	6.571***
감각 개념	가족성	.093	.306	13.811***
준비도 총점	사회성	.070	.252	10.114**
	독립성의 육성	.117	-.212	8.814***
	언어적 환경	.162	.276	8.499***
	발달을 위한 자극	.195	-.194	7.957***

*p<.05 **p<.01 *** p<.0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HOME에 의한 가정환경과 아동의 성격은 학교준비도의 총점에서 19.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준비도의 각 하위요인은 HOME과 성격이 각각 약 7~1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해 가정환경 중 언어적 환경, 발달을 위한 자극 및 독립성의 육성 요인이, 성격에서는 사회성과 가족성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학교준비도, 가정환경 및 성격에서의 성과 연령(개월)에 따른 차이

1) 성에 따른 학교준비도, HOME 및 성격에서의 차이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HOME 및 성격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F 검증한 결과, 학교준비도 총점과 하위요인들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평균점수에서 약간 높게 산출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2) 연령에 따른 학교준비도, HOME 및 성격에서의 차이

아동의 연령을 임의로 60개월 이하, 61~66개월, 67개월 이상의 세 단계로 나누어 학교준비도, 가정환경 및 성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 및 성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준비도에서는 감각개념을 제외한 총점과 하위요인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연령(개월)에 따른 학교준비도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60개월 이하		61~66개월		67~72개월		F
	M	SD	M	SD	M	SD	
개인/사회적 반응	15.500	1.915	14.382	2.086	15.385	2.046	3.952*
연상적 어휘	8.000	1.414	9.255	2.213	9.936	1.768	3.356*
수 개념	11.000	1.414	12.600	1.571	12.974	1.512	3.694*
감각 개념	16.750	.500	17.400	1.448	17.808	1.163	2.590
준비도 총점	51.250	4.113	53.636	5.075	56.103	4.572	5.561**

* p<.05 **p<.01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준비도 총점과 개인/사회적 반응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의 있는 차이에 대하여 5% 유의도 수준에서 사후검증(Scheffé)한 결과 준비도 총점에서는 61~66개월과 67~72개월간에서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 중 개인/사회적 반응은 61~66개월과 67~72개월간에서, 수개념에서는 60개월 이하와 67~72개월간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있었다.

4. 사회인구론적 변인에 따른 학교준비도, 가정환경 및 성격에서의 차이

사회인구론적 변인으로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유형, 월평 0원 생활비와 거주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이들 변인이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HOME 및 성격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인구론적 변인들은 학교준비도의 수 개념과 감각개념, HOME의 언어적 환경,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성격의 사회성과 가족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준비도 점수의 평균이 높게 산출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HOME 총점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 있게 더 높은 점수가 산출되었다. 즉 아버지의 경우 대학원졸 이상(M=67.00)이 고졸 이하(M=59.24)보다 높게 산출되었으며, 환경의 물리적 측면, 놀이 자료에서도 대학원졸(M=12.42, 13.00)이 고졸(M=11.05, 11.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대학원졸 이상(M=65.50)이 고졸 이하(M=59.99)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에서는 고졸 이하와 초대졸·대졸, 고졸 이하와 대학원졸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직업유형에 따라 가정환경과 성격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준비도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에서 총

점과 연상적 어휘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기술직인 경우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를 취업유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환경의 하위요인 중 놀이자료에서만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비취업모(M=11.98)가 취업모(M=11.09)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표 6> 사회인구론적 변인에 따른 학교준비도, HOME 및 성격에서의 차이검증 결과(F치)

		부모 교육수준		부모 직업유형		모 취업 유무	월평균 생활비	거주 지역
		부	모	부	모			
학 교 준 비 도	개인/사회적 반응	.94	.46	1.42	1.87	.020	.49	7.76**
	연상적 어휘	1.27	1.52	2.71*	1.14	.01	1.76	.76
	수개념	.35	.05	2.08	.65	.00	.46	1.82
	감각 개념	.48	1.00	1.75	.72	.27	.35	1.68
	총점	1.36	.12	3.21*	2.01	.01	.80	5.13*
가 정 환 경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1.79	2.03	.27	2.29	.62	2.37	6.09*
	발달을 위한 자극	2.80	2.10	1.38	1.23	1.16	.367	.003
	언어적 환경	1.75	1.69	1.73	1.08	.26	.49	.03
	육구민족 정도 및 허용성	.16	.32	.27	.42	.80	.20	.22
	독립성의 육성	1.41	2.19	1.05	1.12	.06	.50	.01
	정서적 분위기	.16	2.67	.34	.63	.39	1.19	.04
	경험의 다양성	.92	1.39	1.34	.79	.02	3.52*	3.33
	환경의 물리적 측면	6.66**	2.96	1.84	1.21	.00	7.37***	.03
	놀이자료	4.63*	1.90	.90	1.74	4.64*	4.51**	.48
	총점	3.81*	3.52*	1.07	.59	.45	4.55**	.21
성 격	학문성	.20	.80	.99	.47	.29	.43	.00
	사회성	.51	.57	.74	.24	.87	1.23	.06
	가족성	1.02	.17	.72	.79	.64	1.73	.91
	정서성	.14	.87	.44	.58	.40	1.35	1.53

* p< .05 **p< .01 ***p<.001

가정의 월평균 생활비에 따라서는 HOME 총점과 하위요인 중 경험의 다양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과 놀이자료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의 사후검증 결과, 총점에서는 월평균 생활비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경험의 다양성과 환경의 물리적 측면은 100만원 미만과 150만원 이상에서, 놀이자료는 100-150 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학교준비도 총점과 하위요인 중 개인/사회적 반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산출되었다. 즉 서울지역이 경기·충청도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HOME에서는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지역이 경기·충청도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HOME에 의한 가정환경 및 성격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가정환경과 성격이 학교준비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변인들이 성과 연령(개월) 및 사회인구론적 변인, 즉 부모교육수준과 직업유형, 월평균생활비,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준비도 총점과 HOME 총점간의 관계에서는 유의 있는 상관관계가 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준비도의 총점과 HOME의 하위요인 중 언어적 환경과 환경의 물리적 측면 간에는 유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줄수록 아동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이 더 잘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특히 학교준비도는 독립성의 육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더 독립적일 것을 요구할 때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부모들의 허용적 양육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적게 낳아 자녀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적으로는 자녀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여 이것이 지나친 자율성으로 이어져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연구한 고영미(1995), 박수경(1992), 박은정(1996) 등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그들의 학력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로 하여금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Baumrind가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율성을 고무시켜 줌으로써 책임감의 발달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유안진, 김연진, 2000; 이은화, 김영옥, 1999)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영희·송영란·김중선(2002: 51-52), 이숙·우희정·최진아·이춘아(2002: 55-56), 최경숙(1985: 304-305)는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와 과잉보호적 양육태도로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녀는 책임감과 독립심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으며,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기 통제력이 약한 아동으로 자라나게 함으로써 과도한 의존심을 야기함으로써 아동의 독립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의 적응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결과는 부모들의 지나친 특수 조기교육과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수 조기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학교준비도 점수는 향상될 수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추후 부모 양육태도를 조사해보므로써 보다 확실하게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준비도와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에는 언어적 환경에서만 의의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언어적 환경, 육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환경의 물리적 측면에서 의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독립성의 육성에서 의의 있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서 남아보다는 여아가 부모들이 제공해주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들이 언어적이고 물리적인 자극을 더 많이 제공해주고, 육구를 만족시켜주고 허용적이고, 더 순종적일 것을 강조할 때 여아들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남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언어적 자극을 많이 줄 때 학교생활에 적응이 더 쉬울 수 있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과 HOME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언어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놀이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주수록 더 순종적일 것을 강조할수록, 아동은 신체 및 주변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단어의 의미, 단어와 연상되는 현상의 이해 능력과 일반 상식 및 수세기, 수계열상의 위치와 양적 개념, 형태 및 색깔 개념과 지각 운동 능력이 더 잘 발달될 수 있다. 이는 가정의 학습환경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서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Parker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도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남아보다는 여아와 더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유형적, 무형적 가정환경이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학교준비도의 총점과 아동의 성격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여아와의 관계에서 의의 있는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즉 여아의 경우에 성격의 사회성, 가족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정서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대인 적응성이 강하고, 가족생활이 긍정적인 성격의 여아인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잘 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여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신체적 특징을 지닌 개인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쉽다고 지적한 Adler, Kretchmer, Sheldon 등의 연구결과들(한국인간발달학회, 1997: 371)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원인 규명은 차후의 심층적인 연구

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준비도에 대해 가정환경과 성격은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 하위요인별로는 약 7~13%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환경에서의 언어적 환경은 학교준비도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에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다양한 언어적 자극, 즉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주는 등의 자극이 아동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면 자녀의 두뇌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 백악관회의(The White House Conference, 1997)의 결과(조성연, 2001: 358)와도 일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성과 연령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학교준비도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Morrison, Griffith와 Alberts(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아동에게 있어서 1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많은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개월수에 따라 세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준비도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학교성취에 대한 독립적인 예언변인이 아니라는 결과들(Alexander & Entwistle, 1988; Gredler, 1980; Jones & Mandeville, 1990; Sheperd & Smith, 1986)과는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학교준비도는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학교준비도가 연령과 관련된다는 것은 단순히 연령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의 기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의한 학습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아동의 신체 및 주변에 관한 기초 지식의 습득과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사회적 반응이 가장 어린 개월 수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 신체 부위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 자주 언급해주고 이를 따라하게 함으로써 늘 아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상기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추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깊이 있고 다양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성격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인 경우에는 뚜렷한 성격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녀의 성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정환경 자극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인구론적 변인과의 관계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 지역의 아동들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경기·충청 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적 자극에 접하기 쉽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문화적 활동과 상호작용 및 이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고, 또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준비도와 성격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생활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환경 자극은 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생활비가 많이 들수록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물리적 환경을 마련해주며, 놀이자료도 더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형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직업유형만이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아동이 더 많은 단어를 이해하고 일반상식을 더 많이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Parker 등(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지만, Morrison, Griffith와 Alberts(199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의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과 더 많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직업유형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아동의 학교준비도나 성격, 가정환경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탈피하게 하는 것이고는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에 아동의 창의성에 차이가 없다는 조성연(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취업모들에게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자녀문제에 자신의 취업을 고민하는 많은 기혼여성들에게 자신의 취업이 자녀의 학교적응이나 학교준비도와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환경 자극에 있어서도 놀이자료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취업모들도 절대적인 양만이 부족할 뿐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비취업모와 차이가 나는 가정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이 제공해주는 가정환경 자극과 성격은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해 가정환경과 성격은 약 20% 정도의 설명력을 지닌다.

셋째,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가정환경과 성격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령(개월)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더 높아진다.

넷째,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아버지가 전문기술직에 종사할수록 더 잘 이루어진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생활비가 많이 들수록 아동에게 더 다양한 가정환경자극이 제공된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준비도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의 변화와도 연계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들은 아직 국내에서 표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들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학령전 아동들의 기관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가정의 유대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동이 다니는 기관유형과 그에 따른 교사의 수업방식을 함께 고려한 학교준비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학교준비도 및 가정환경과 성격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및 태도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7월 25일

【참 고 문 헌】

- 고영미(1995).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남기덕·박영호·송명자·송인섭·심용철·윤가현·윤영화·이철원·이현진(1999). **심리학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 박수경(1992).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및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 감각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1996).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93). **유아성격검사: 검사방법요강**. 서울: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 유안진·김연진(2000).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오영희·송영란·김종선(2002).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 서울: 동문사.
- 이숙·우희경·최진아·이춘아(2002). **훈민중심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은혜(2001).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서울: 교문사.

- 이은화·김영옥(1999).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장영애(1987).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특성간의 인과모형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연(1998).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5, 79-96.
- _____(2001). *예비 부모를 위한 부모됨의 교육*. 서울: 도서출판 동인문화사.
- 중앙일보. www.joins.com
- 최경숙(1985). *아동심리학*. 서울: 민음사.
- 통계청(200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통계청.
- 한국인간발달학회 편(1997). *유아의 심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Alexander, K.L. & Entwistle, D.R.(1988). Achievement in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Patterns and process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
- Anastasi, A.(1988).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Macmillan.
- Christenson, S.L.(1995). Families and schools: What is the role of the school psychologis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0, 118-132.
- Eccles, J.S. & Harold, R.D.(1996). Family involvement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schooling.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Symposium on Family-School Links: How do they affect Educational Outcomes? University Park, PA.
- Griffith, J.(1996). Rel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empowerment, and school traits to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0, 33-41.
- Hall, C.S. & Lindzey, G.(1978).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Jones, M.M. & Mandeville, G.K.(1990). The effect of age at school entry on reading achievement scores among South Carolina student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1, 56-62.
- Moles, O.C.(1996). New National directions in research and policy. In A. Booth & J.F. Dunn(Eds), *Family-school links: How do they affect educational outcomes?*(pp. 247-254). Mahwah, NJ: Erlbaum.
- Morrison, F.J., Griffith, E.M., & Albets, D.M.(1997). Nature-nurture in the classroom: Entrance age, school readiness, and learning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54-262.
- Parker, F.L., Boak, A., Griffin, K.W., Peay, L., & Ripple, C.(1999). Parent-child relationship,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413-425.
- Parker, F.L., Piotrkowski, C.S., Kessler-Sklar, S., Baker, A.J.L., Peay, L., & Clark, B.(1997). *Parent involvement in Head Start*. NY: 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 Center for the Child.
- Sheperd, L.A. & Smith, M.L.(1986). Synthesis of research on school readiness and kindergarten retention. *Educational Leadership*, 44, 78-86.